# 북텍사스 지회에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남 상 택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 동창 여러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올해는 북텍사스 지회에서 개최하게 되어 이화동창들이 항상 그러했듯이 헌신과 봉사로 이화 정신을 묵묵히 실천하며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진 회장님과 동창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창들이 북미주 지회연합회를 통해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국제재단과 더불어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은 모든 동창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의 일환으로 동창회지를 발간하여 소식을 나누면서 모든 지회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도 크게 기여 하리라 생각됩니다. 회보 발간을 위한 동창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개최지였던 시애틀에서 함께했던 일정들이 생각납니다. 선후배 동창이 각지에서 찾아와 안부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고, 내년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며 헤어질 때에는 아쉬움과 사랑과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11 월에 북텍사스 지회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에서 동창 여러분과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총회의 주제로 설정한 “Make Ewha Glorious Again”은 동창들 마음 속에는 이화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이화의 위상이 한 번 더 드높아지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 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알고 모교를 더욱 발전시켰던 134 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번 총회를 통하여 결속력을 한 번 더 다진다면 이화를 향한 소망의 의지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곳 동창들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총동창회는 북미주 지회연합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동창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하면서, 세대 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다가올 5 월 동창의 날 행사에서도 반갑게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북텍사스 지회 Dallas 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